

‘익산 로컬푸드 인증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축산물·가공식품 대상 생산 농지 토양·용수 검사·농약 검사 등으로 안전성 강화

익산시가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과 소비자 신뢰 확대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익산 로컬푸드 인증제’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익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생산 농지의 토양·용수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하며, 가공품은 원료 농산물과 생산시설을 비롯한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오염원이 토양과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농지 주변

을 깨끗이 관리하고, 수확 후 작업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산물은 재배 관리 방법에 따라 기본(실버·Silver), 우수(골드·Gold), 최고(다이아몬드·Diamond) 등 3단계로 인증을 부여한다. 축산물은 유기축산, 무항생제, 동물복지, 해썹(HACCP) 인증 중 한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주재료는 100% 익산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이어야 하며, 주·부재료의 함량은 50% 이상 익산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을 사용하고 수입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익산시는 체계적인 인증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 인증정보관리시스템(iksanlocal.kr)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진행한다. 또한 인증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 표시를 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인증제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 관리와 생산·유통 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범죄 취약지역 등 185곳 대상... 총 466대 장착 완료

익산시가 사건·사고·범죄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CC)TV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 범죄 취약지역 등 185개소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466대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제센터용 폐쇄회로(CC)TV는 91개소, 204대이며, 마을방범용 폐쇄회로(CC)TV는 94개소, 262대다.

또한 기존 3,100여 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대해 지난 6~7월 카메라 작동 여부와 구조물, 장착물, 안내판 등을 점검해 31건을 교체하고 고장난 카메라 82대를 즉시 수리했다.

지난 6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영상 내 사람과 차량을 식별하고 배회와 침입, 폭력, 넘어짐 등의 이상 행동을 신



속하게 감지한다.

시범 운영 지역은 신동 원룸 밀집지역과 배산공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40여 대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 설치된 CCTV가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안전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 개정면 주민 대상 에너지 체험교실 운영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인 군산시민발전(대표이사 최영환)과 사회협동조합 새로이(대표 정지민)는 오는 27일 개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함께 즐기는 에너지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교실은 지난달 2일 개최된 ‘2024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에 대한 시민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마련됐다. 27일 오전 개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체험 교실에는 마을주민 2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기후 위기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패널을 이용한 체험활동도 경험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리동로타리클럽, 제 16호

리브하우스 준공식 개최

익산시 왕궁면에 이리동로타리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리브하우스 16호집이 탄생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회장 김성곤)은 리브하우스(사랑의 집짓기 사업) 16호집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과 김숙영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지역 대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리브하우스는 이리동로타리클럽이 매년 회원들의 후원금과 재능기부, 단체 기금, 시 보조금 등을 활용해 소외 이웃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기부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리브하우스 16호집은 21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9000만 원의 건축비용이 소요됐으며, 지난 9월 첫 삽을 떠 약 2개월의 공사를 거쳐 구연옥씨에게 기증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추진

고품질 원예농산물 판로개척·통합마케팅 체계 구축... 군산농업 새 전환점 ‘기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고품질 원예농산물의 판로개척과 규모화·전문화·조직화된 혁신적인 통합마케팅 체계구축을 위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조공법인은 농업인들의 이익증진 기여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군산시는 조공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군산시 조공법인 설립

을 공식화하는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석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부지사,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 출자농협인 군산 관내 농·원협 조합장 8명 등이 모여 군산원예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그동안 군산시는 통합마케팅조직이 없어 산지 유통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군산시조공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

한 다양한 사업과 협력을 통해 군산농업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군산시 농산물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 조공법인이 산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군산시 원예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중국 3개 도시 우수학생단, 군산시 방문

‘군산 새만금문화학당’ 학생들, 3일간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중국 ‘군산 새만금문화학당’ 우수학생단이 지난 25일 군산을 방문, 책장 밖 군산시를 배우고 체험하는 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우수학생단은 2023~2024년 진행된 수업의 우수학생단으로 꾸러졌으며, 군산시의 3개 우호 도시 양저우(揚州)시, 베이하이(北海)시, 장인(江陰)시에서 선발되었다.

자리를 함께 한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귀국 후에도 끝이 아닌 시작으로 군산시의 소중한 친선홍보대사로 활동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군산 새



만금 문화학당 우수학생단과 군산의 인연을 다시금 강조했다.

‘군산 새만금문화학당’은 군산시 중국사무소(중국 산둥성 엔타이 소재)에서 중국 내 13개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화 강좌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시민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내달 15일, 군산예술의전당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시민 참여 의미를 더해 작년 5월 열린 시립교향악단의 제60회 기획연주회 ‘함께하는 우리’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산시민들과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10월 군산시민 연주자를 공개 모집해 초등학교부터 일반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총 57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시민 연주자들은 두 달간 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거쳐 무대를 준비했



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이는 이번 송년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민과 시립교향악단이 함께 소통하는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첫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연주하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제3번으로 러시아 낭만

주의 정수를 담은 감미롭고 서정적인 선율로 공연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민 연주자들과의 무대에서는 ‘나팔수의 휴일’, ‘타자기 협주곡’,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곡목들이 연주되어 시민 연주자들의 재능과 열정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전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현장에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기다 공연 관련 문의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063-454-5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수의계약 공사 98.9% 지역 업체 계약

익산시가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수의계약 발주 공사 925건 중 98.9%인 915건을 지역업체와 계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역업체 목록을 익산시 전 부서에 제공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선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선결제도를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해서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긴급입찰 시행과 각종 계약 완료 시 검사 기간 최대 단축과 대금 청구를 받아 신속하게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익산시는 지난 달 기준 선결제도를 통해 332건, 408억 원을 집행해 업체의 자금 운영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